

미국치과의학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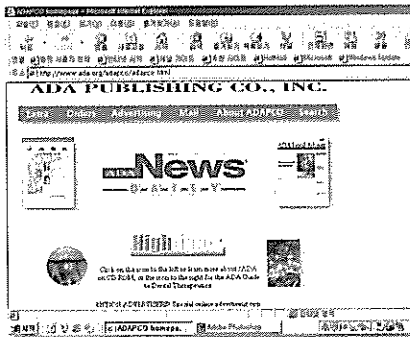


박기철

인디애나대학교 치과대학
공중보건치과연구소장
예방치과학 및 사회치과학 교수

E-mail:kichuelpark@mindspring.com

ADA News



전체 20쪽으로 마련된 ADA News 30권20호는 36년만에 처음으로 전문치과 의사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된 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 대한 기사내용과 Honolulu에서 개최된 140회 ADA 연차 총회에서 10월 13일 제136대 회장으로 취임한 Mascola씨의 취임 연설 및 ADA 회비인상에 대한 내용을 표제기사로 다루고 있다. 다른 내용들은 ADA의 새로운 임원진을 소개함과 아울러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Robert M. Anderson 씨의 경력을 회원들에게 소개하였다. 의정국장시설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출한 C. Everett Koop 박사과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이었던 Joe Garagiola와 현재 미국의 국립치과의학연구소(NIDCR)의 소장인 Harold Slavkin 박사의 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치과의학의 중요성을 일반대중에게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ADA가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는 내용과 주사바늘의 관리와 관련된 입법예고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Hawaii에서 있었던 이번 ADA 총회의 여러 가지 행사내용을 사진으로 보도하고 있다.

Journal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JADA)의 간단한 역사

월간으로 발간되는 JADA는 20세기에 치과의학에 대한 정보와 과학적 진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치과의학계에서 가장 신빙성 있고, 치과의료인들이 즐겨서 읽는 20세기의 전문기관지로 등장하였다. 그 당시 전국치과연합회(National Dental Association)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은 1913년에 일년에 네 번 발행하는 공식적인 소식지(Official Bulletin)로 출판을 시작하였고 2년 후인 1915년에 명칭을 전국치과협회 전문잡지(JNDA; The Journal of the National Dental Association)로 이름을 바꿔 일년에 4회 발간하였다. 1917년 이 전문잡지는 월간 잡지로 발간되어 당시 치과 참고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JNDA가 호황을 누리게 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치과의학 정기간행물이 정간되었다. 그 당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던 치과 등록(Dental Register)도 1923년에 출판을 중지했다. 치과 언론계의 선도자의 역할을 했던 덴탈코스모스(Dental Cosmos)까지도 1938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JNDA는 지금 사용하고있는 JADA로 이름을 바꿨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JADA는 한 달에 두 번 발행되었다. 월간지로서 매달 발간되는 양을 줄이고 독자들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광고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1948년에 다시 월간지로 변모하였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월간지의 내용도 달라졌다. 가장 최근에 큰 개혁을 시도한 것은 1991년에 월간지의 가장 많은 독자들인 임상진료에 임하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여 표지를 바꿈과 동시에 편집내용에 혁신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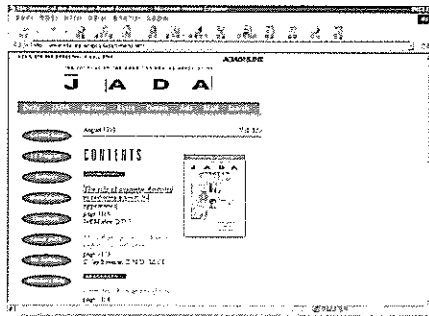
오늘날의 JADA는 ADA회원인 치과의사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 및 임상진료 정보
- 최근의 뉴스와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 개원의사들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내용과 법률상식
- 신간소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개와 검토 (Computer software review)
- 다른 치과 간행물들의 여러 가지 초록
-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World Wide Web)에 대한 월간 특집, 특히 ADA의 온라인(Online)과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

JADA는 독자들의 반응을 말해주는 독자란을 마련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JADA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독자들은 ADA회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JADA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J A D A

11월호 (p1537~1690)



1999년 JADA 11월호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치과진료실의 설계와 치아우식증에 관한 내용들을 표제 내용으로 다루었다. JADA의 주간인 Lawrence H. Meskin 교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으며, 해내고 말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국 하원을 통과한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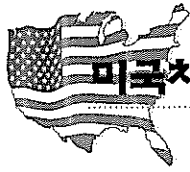
자 보호법안과 관련시켜 ADA회원 전체가 단결해서 치과의사로서 미국 하원 국회의원인 Norwood 씨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게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사설로 다루었다.

치과개원의사들을 위한 진료실의 설계와 관련된 3편의 글을 건축설계사이며 치과의사인 Michael Unthank씨가 마련하였다.

'치과진료실의 계획(Dental Office Planning)'이란 제목으로 다룬 첫 번째 내용에서는 '치과진료실을 구상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 성공적인 진료를 위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전제하고 주위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반적인 진료실의 크기, 진료실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및 장소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디자인과 건축 과정을 철저히 이해하여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실천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치료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Treatment)'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글에서는 치료실의 디자인을 치과의사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좀 더 경제성을 감안하고 전체적인 진료실의 경영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환자, 진료실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사용하는 치과치료기구를 염두에 두고 치료실을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치과 진료실은 치료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치과진료를 위한 내부장식 (Interior Design for Dentistry)'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글에서는 점점 복잡해지는 치과진료방법과 동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치과진료를 실시하려면 실내장식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시술자의 성격과 일치되는 실내장식을 위해서는 내부의 도색, 조명, 끝마침 및 조각품이나 전시하는 예술품



미국치과의학계정보

작품에 신경을 써야한다. 모든 상황을 잘 마쳐서 마련된 진료실은 환자들이 호감을 주어 좋은 시장개척의 도구 (marketig tool)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진료실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들과 상의할 때 전체적인 예산과 비용 및 중점적인 진료내용에 대한 세심한 토론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Unthank씨는 말하고 있다.

11월호 JADA의 News로서는 미국의 식품약정국이 Vancomycin에 저항력을 가진 세균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Synercid 사용을 9월21일자로 허가했다는 사실과 치과위생사나 여자 치과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크릴릭(acrylic)으로 만든 장식용 손톱을 통해서 치과치료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건조한 양파(onion)와 파슬리, 상추, 토마도(tomato), 오이, 마늘 등과 같은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질 흡수 (bone resorption)가 감소된다는 연구보고 내용을 다루었다.

연구논문으로는 Judy R. Heilman을 중심으로 아이오와 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진이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각종 음료수의 불소농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함과 더불어 미국 중앙질병연구소의 Scott L. Tomar 박사와 국립치과의학연구소의 Deborah M. Winn 박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미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씹는담배의 사용이 치아우식증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임상진료와 직결되는 내용으로는 칼슘 채널 차단제 (Ca2+ channel blocker)를 사용하여 혀에 발생한 창상(ulcer)을 진단 및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심한 치아악골 전들증(dentoalveolar extrusion)환자를 수술로 치료하는 증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치과 임상진료시에 자주 볼 수 있는 외상으로 인한 파절 치아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로 glass ionomer cement를 사용한 성공사례를 다루었다. 그 이외에 치과진료실의 경영 관리와 관련시켜 고용했던 직원을 해고시킬 경우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Gordon J. Christensen 박사는 그의 정기 칼럼에서 환자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마련한 치료 계획안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방안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치료계획안을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Harold C. Slavkin 박사는 그의 칼럼에서 미국인들의 큰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골다공증에 대한 최근의 연구방향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특별기고 내용으로 ADA의 건강정책자료 연구소의 L. Jackson Brown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분석한 '미국의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치료하지 않은 영구치 우식증 변화 추세' 내용을 다루었다.

ADA의 고문 변호사인 Peter M. Sfikas 씨는 '전문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미국의 Georgia 주에서 비뇨기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환자치료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전문인의 사생활은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사실이 부정의료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보고하였다.

ADA의 보고사항으로 치과진료실의 수도관을 통한 감염예방책을 보고하였다. 치과 의사를 비롯한 진료요원들이 진료실의 수도물에 기회성 세균들(opportunistic microorganisms)이 다량 존재하고 있으며 치료시에 수도물이 역류될 경우 특수한 환자로부터 세균이 수도물에 들어가 다른 환자의 구강 내로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물의 감염관리법으로 독자적으로 치료용 수도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마련하거나 약제를 이용하는 경우와 특수한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 및 소독된 물을 공급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치료용 수도물의 세균측정 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구내용과 앞으로 실시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탄산 음료수의 불소농도

치아가 형성되는 기간 중에 너무나 많은 양의 불소를 섭취하면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어린이들이 많은 양의 탄산음료수를 섭취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Iowa 대학교 치과대학의 Judy R. Heilman, Mary C. Kristy, Steven M. Levey 및 James S. Wefel은 Iowa 지역의 식품점에서 사들인 332개의 캔에 들어있는 탄산음료수내의 불소 농도를 분석했다. 불소전극을 이용하여 TISAB으로 조정된 탄산음료의 불소 농도(ppm)를 분석하였다. 탄산음료의 제조회사와 캔을 만든 지역별로 분석된 불소농도를 분류하여 불소농도에 대한 최저농도 및 최고농도에 대한 분포를 통하여 검사치의 다양성을 분석하였고 전체적인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계산한 다음 차이값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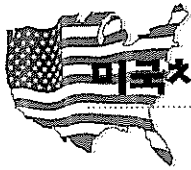
332개의 탄산 음료수 캔이 17개의 다른 지역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불소의 농도가 0.02 내지 1.28ppm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체 탄산음료수의 평균 불소함량은 0.72ppm이었고 그 표준편차는 0.32였다. 불소 농도가 0.80ppm인 탄산음료가 가장 많았다. 분석한 전체 탄산음료 캔의 71%가 0.60ppm 이상 되는 농도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같은 제품의 탄산음료수도 제조공장에 따라 불소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같은 Coca-Cola 상표의 탄산음료라 하여도 불소 함량은 0.02ppm으로부터 1.10ppm으로 변화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은 탄산음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에 포함된 불소함량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음용수가 불소화되지 않은 경우, 탄산음료 캔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불소를 체내로 섭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 환자들에게 특수한 불소치료법을 위하여 처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수의 불소함량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치료하지 않은 영구치 우식증 변화 추세

이 연구 논문은 미국의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치아우식증의 변화 추세에 대한 3가지 연구중의 첫 번째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미국의 중앙질병관리소의 미국 건강통계 연구소(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건강 및 영양 실태조사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중 1971년 4월부터 1974년 6월까지 실시한 첫 번째 결과 (NHANES I)와 1988년 10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실시한 세 번째 결과 (NHANES III) 중에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영구치 우식치 상태를 분석한 연구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NHANES I의 결과에서는 피검자의 영구치 우식 경험 치아수가 1.43이었는데 NHANES III의 결과는 영구치 우식 경험 치아수가 0.33으로 감소하였다. 나이, 성별, 인종 및 빈부의 조건에 관계없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우식치아표면수를 보아도 NHANES I의 결과는 234였고 NHAES III의 결과는 0.49로서 두 조사기간 사이인 약 20년 동안에 79.06%가 감소된 것이다. 이러한 우식치의 감소현상은 치과개원의사들이 과거에 보존치료를 주로 실시했으나 앞날의 치과개원의사들은 건강한 치아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식치의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실시하고 성년층의 치아우식증의 변화 추세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암(Cancer) 치료제를 잘 병용해서 사용하면 암세포를 전멸시킬 수 있다

11월 9일자로 발간된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Boston의 Dana-Farber 암 연구소에 근무하는 Chiang J. Li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암 치료제를 잘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암세포들이 자살행위를 통해



서 죽어버린다고 했다. 암 치료제로 잘 알려진 택솔(taxol)과 베타 라파촌(beta-lapachone)을 잘 병용할 경우에는 암 세포가 전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의 몸은 생체 내에서 유전적인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되면 이러한 유전자의 변형이나 손상을 지켜보는 초소(checkpoint)가 있어 유전자상의 변화 내지 손상된 세포를 가려내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초소에서 이러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전자의 이상이나 손상이 있는 세포를 가려내지 못하여 이상 증식을 하는 경우 암이 발생한다. 암 치료제로 사용하는 택솔과 베타 라파촌은 이러한 초소가 맡은 원래의 기능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한다. 택솔과 베타 라파촌은 이러한 초소의 임무 중 약한 부서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허술했던 초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전자의 이상이나 손상이 있는 암세포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자살행위를 유도한다. 택솔이나 베타 라파촌을 각각 한 가지만을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암 세포를 약 50% 죽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암 치료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암 세포를 전멸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암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택솔의 복용 24시간 전에 베타 라파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혼용 치료법은 난소암, 유암, 전립선암, 폐암, 피부암에도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99; 96:13369-13374).

녹차가 체중감소를 도와 줄 수도 있다

Switzerland의 Geneva 대학교에 근무하는 Abdul Dulloo 박사가 미국 임상 영양학회지 11월호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면 체내에서 칼로리 연소를 향진시켜 체중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했다. Dulloo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평균 55세 되는 건강한 남자 10명을 대상으로 13%의 단백질, 40% 지방질, 47%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전형적인 서양식 식사를 공급하면서 6주 동안 녹차에서 추출한 물질과 카페인(caffeine) 50mg을 투여한 경우(첫째 그룹)와 카페인 50mg 만을 투여한 경우(둘째 그룹), 녹차의 추출물이나

카페인을 투여하지 않은 비교군(셋째 그룹)의 24시간 동안 열 소모량을 비교하였다. 둘째와 셋째 그룹의 열 소모량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첫째 그룹의 경우 둘째나 셋째 그룹보다 열 소모량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Dulloo 박사는 “카페인이 녹차에서 추출되는 자연물질인 ‘플라비노이드(flavonoids)’와 작용하여 생체의 신경 전달물질인 norepinephrine의 사용을 변화시켜 생체의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녹차는 많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장이 뛰는 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American J of Clinical Nutrition 70:1040-1045, 1988).

비만증이 성인에서 발생하는 천식(asthma)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Harvard 대학교의 Carlos A. Camaro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11월 22일 발간된 내과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증의 여자들이 천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4년 동안 거의 86,000명을 상대로 한 임상조사 연구에서 1,596명이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이들을 상대로 2년 동안 체중의 변화와 천식의 발생빈도에 관한 역학적인 연구를 실시한 내용이다. 체적지수(BMI; Body Mass Index)와 천식 발병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후에 체중이 많이 불어난 여자들의 경우 천식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임상적인 역학연구결과는 서로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비만증이 천식의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과학회지의 사설에서 Mark M Wilson 씨와 Richard S. Irwin 씨는 지적하고 있다.

U.S. FDA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HIV 검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공표 하였다

미국의 식품약정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금년 여름 Internet을 통하여 판매를 시작한 가정용 HIV 검사기구가 HIV에 양성인 사람에게도 음성인 판정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판매를 취소하고 이러한 검사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상공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FDA는 Cyberlinx Marketing Inc., 가 Internet을 통해서 판매하고있는 "EZ Med Test"라고 광고하는 검사기구와 Sovo Tec Diagnostics, Inc., 제품인 "HIV 1/2 STAT-PAK Ultra Fast"의 신빙도를 검사한 다음 이러한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의 지방법원에서는 이 회사들에게 Internet을 통한 광고와 판매를 즉각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FDA의 총책임자인 Daniel L. Michel씨는 Internet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검사기구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러 기관과 전문가 협회에 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FDA는 Illinois주의 Hoffman Estates에 있는 Home Access Health Corp.에서 제조한 Home Accss HIV-1 test System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검사기구는 단지 검사할 시료(test sample)를 가정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채취한 시료의 판별검사는 별도로 실시한다.

Alzheimer병의 새로운 진단법

North Carolina의 Durham에 소재한 Duke 대학교 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Helene Benveniste여사는 MRM (Magnetic Resonance Microscopy)를 통해서 Alzheimer 병을 진단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Alzheimer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뇌에 축적된 특수한 단백질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사용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단백질의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MRM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단백질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96:14079-14084, 1999)

미국의 새로운 HIV 캠페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HIV와 관련된 검사, 지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큰 도시의 중심지역을 목표로 설정한 이 캠페인은 'HIV. LIVE WITH IT. GET TESTED!'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책임지고 있는 Martha Diaz 는 "청소년들이 HIV가 중요한 건강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 청소년들에게 주입식으로 내용을 전달할 뿐이고 실용성이 없고 어른들을 위주로 모든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새로 시작된 캠페인은 청소년들을 초점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신빙성 있는 운동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HIV 감염자가 많은 New York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Baltimore, Los Angeles, Miami, Philadelphia 와 Washington, DC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치료하지 않은 당뇨병은 치주병과 연관된다

Texas A&M 대학교 Baylor치과대학에 근무하는 Christopher Culter씨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잇몸병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진다. 당뇨병은 에너지 생성에 쓰이지 않는 여분의 당을 혈액 중에 보유하게 되는 병이다. 당뇨병과 잇몸병의 연결점은 혈중 지방(fat)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콜레스테롤(cholesterol)이나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와 같은 지방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상인과 당뇨병환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로서 심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cytokine 같은 해로운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었고 감염으로부터 치주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이로운 단백질인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의 양이 감소되었다. (Journal of Periodontology 70:1313-1321, 1999.)